

성화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칼빈의 이해  
Calvin's Understanding of Sanctification and the  
Grace of God

이신열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67
- II.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 | 69
- III. 성화의 다양한 측면 | 75
- IV.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 84
- V. 결 론 | 95





요약

## 성화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칼빈의 이해

칼빈의 성화론은 그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그는 구원을 논함에 있어서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칼빈의 성화론은 지금까지 대부분 그의 은혜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는 구원의 진보와 관련된 인간의 상황이 성화론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이제 그의 성화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새롭게 고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칼빈이 은혜를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 정초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성화론은 하나님의 거룩 이해에 근거한 은혜로부터 고찰되어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에 죄악으로 가득찬 인간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거룩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그가 인간을 대하시는데도로서 이해함으로써 그의 거룩에 대한 이해에는 은혜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거룩에 대한 개념을 정초로 칼빈은 성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성화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으로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므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성화와 그리스도의 성화를 통해서 교회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교회의 거룩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획득하신 거룩함이 부여된 결과이다. 따라서 교회의 성화는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 은혜가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수단에 해당된다. 칼빈은 이를 말씀 안에서 은혜가 주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둘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칼빈은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회개하도록 도우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회개와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하면서 강조한다. 셋째,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결코 하나님께



요약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행위는 수용되고 인정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성화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의 행위이므로 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성화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성을 지닌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지속성이 은혜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Calvin's Understanding of  
Sanctification and the Grace of  
God*

주요어  
성화, 은혜, 신적 기록, 인간의 행위

## Abstract

### Calvin's Understanding of Sanctification and the Grace of God

Prof. Dr. Samuel-Y. Lee

Calvin's doctrine of sanctification is a vital portion of his soteriology. In his discussion of salvation, his viewpoint is clearly seen in the title of Book 3 of Institutes, 'the way we receive the grace of Christ'. However, almost all the works dealing with this doctrine have not been mainly studied from his understanding of grace. Most of them starts their discussions from human situation associated with the progress of salvation.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and reevaluate this doctrine from the perspective of divine grace.

Calvin's understanding of grace can be explained by his concept of the holiness of God. In Calvin's thought there are wrath and judgment of God as he faces human evil arising out of sinfulness. But he refuses to consider divine holiness as one of the attributes of God. On the contrary Calvin understands it as one of the attitudes of God regarding human. This kind of understanding enables him to see that grace is already included in the concept of holiness.

Based upon such concept of holiness, Calvin starts to see sanctification as one's consecration to God. Consecration means to acknowledge self-denial before God knowing one belongs to God. It is possible only when one has faith in God and Christ. The sanctification of Christ shows that He had been cleansed before his actual engagement with the work of propitiatory work of redemption. The sanctification of church cannot be thought apart from both consecration to God and sanctification of Christ. Her holiness cannot be acquired from her own ability alone. It is given to her by the holiness of Christ as the result of his offering himself to God. Thus the sanctification of church is actually realized in the rule of Word and Spirit.

Lastly, the role of grace in sanctification is discussed in terms of Word, repentance and human action. First, Word is considered as the instrument of grace even though Calvin prefers to have an expression, "Grace is given in the Word." Second, repentance is totally dependent upon the grace of God. It is not possible by the assisting grace of God as Roman Catholics have argued. Calvin's emphasis is on the adjective 'total' in his explanation of the necessity of divine grace in repentance and sanctification. He praises the excellence of grace in comparison with human weakness. This is the reason why we need to continuously seek his grace in our repentance and thus sanctification. Third, human action cannot be accepted by God apart from his grace. Human actions can have value only if it is accompanied by divine grace.

The reason, first of all, has everything to do with the fact that all human actions in sanctification are encouraged and made possible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od cannot reject the results of the sanctifying work of his own Spirit. Another reason can be seen in the fact that human actions in sanctification are indeed activities of promoting restoration of the image of God and are gladly accepted by him.

**Keywords** | sanctification, grace, divine holiness,  
human action

## I. 들어가는 말

칼빈의 성화론(doctrine of sanctification)은 그의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그의 『기독교 강요』 제 3권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논의가 바로 중생을 포함한 성화에 관한 것을 통해 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그동안 칼빈의 성화론에 관한 많은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1)</sup>

칼빈은 구원과 은혜를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으며 양자를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는 『기독교 강요』 제 3권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더욱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의 성화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물들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다루지 않는다. 성화가 칭의와 더불어 이중적 은혜(duplex gratia)의 구성요소라는 사실은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다.<sup>2)</sup> 물론 로마 가톨릭의 은혜론에 반발하여 은혜(sola gratia)의 개념이 말씀과 성령의 신학으로 재해석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종교개혁 신학 전체에 흐르는 은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칼빈에게 은혜란 중요한 가르침이었으며 이에 대한 그의

1) 단행본으로 출간된 주요 연구물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알프레드 필러, 『칼빈의 성화론』, 유정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로날드 S. 윌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Tjarko Stadland, *Rechtfertigung und Heiligung bei Calvin* (Neukirche: Neukirchener Verlag, 1972); 유창형, 『존 칼빈의 성화론』 (서울: 도서출판 목양, 2009).

2) Stadland, *Rechtfertigung und Heiligung bei Calvin*, 118ff.

이해는 개신교적 입장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3)</sup>

칼빈은 은혜를 논함에 있어서 구원론에 집중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성화론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고전 1:30을 해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며 정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성화를 칭의로부터 분명하게 구별한다.<sup>4)</sup> 성화의 궁극적 목적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이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간이 이 은혜에 근거하여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성화론에서 논의되는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며 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성화를 고찰함에 있어서 인간의 거룩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는 칼빈의 성화론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을 그의 은혜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양자의 관계를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성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하나님께 드림, 그리스도의 자기 성화, 그리고 교회의 성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화에 있어서 은혜의 역할을 말씀, 회개, 그리고 행위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칼빈의 은혜론을 로마 가톨릭 학자들에 의해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의 은혜론을 삼위일체론의 입장에서 다룬 로마 가톨릭 학자들의 글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Alexandre Ganoczy, "Observation on Calvin's Trinitarian Doctrine of Grace," in Elsie Anne McKee and Brian G. Armstrong (eds.),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96-107. 개신교 학자의 경우에 비록 칼빈의 은혜 개념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접근한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오. Philip Walker Butin,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5), 76-94.

4) 『기독교 강요』, 3.11.6.

## II.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의 하나님의 거룩 (holiness)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거룩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순수한 영광에 관한 것이다.<sup>5)</sup>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시며 사람들은 그의 탁월함을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다. 칼빈은 모세가 사막의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주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만이 가장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다고 가르치신다. 이 이름이 부당한 방식으로 다른 사물에 전가될 때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이름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탁월함을 보여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sup>6)</sup>

그는 어떤 피조물도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엄위 가운데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피조물에게 다가 오시지 않는 한 그의 거룩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범죄 타락 이후에 인간은 피조 세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자신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sup>7)</sup> 하나님의

5) 『기독교 강요』, 3.20.41; CO24, 159 (출 15:11 주석): “Sanctitas pro gloria accipitur quae Deum a creaturis omnibus separat, ideoque veluti profanat alias omnes deitates, quas sibi mundus comminiscitur: unius tantum Dei splendida est ac decora maiestas.”

6) CO24, 43 (출 3:14 주석): “Hoc quidem satis liquet, Deum sibi uni asserere divinitatis gloriam, quia sit a se ipso ideoque aeternus: et ita omnibus creaturis det esse, vel subsistere.”

거룩과 위엄을 깨닫기 전에는 인간은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칼빈은 인간이 자신이 곧 신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가를 느끼고 깨닫기 시작한다.”<sup>8)</sup>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한 후에야 자신을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가, 즉 죄악으로 가득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깨닫는 순간에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며 이에서 비롯된 멸망과 죽음 밖에 없다.<sup>9)</sup>

하나님의 거룩을 깨달은 자들에게 임하는 멸망과 죽음은 그들의 새로운 갱신(renovation)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놀라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육체와 관련된 인간의 전부가 무로 소멸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10)</sup> 칼빈은 하나님의 거룩을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두려움과 죄로부터의 회복과 갱신이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혼란 중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쓰러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일으킴을 받고,

7) Butin,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56.

8) CO36, 131 (사 6:5 주석): “Itaque priusquam sese nobis patefaciat, non cogitamus nos esse homines, imo nos putamus esse deos: ubi autem apparuit Dominus, tunc incipimus sentire et experiri quales simus.”

9) CO36, 132 (사 6:5 주석): “Nam, ut dixi, praesentia Dei et propinquitas interitus est carnis nostrae: ea enim ostendit nos ex nobis ipsis nihil esse. Nam qui suae miseriae conscius Deum viçlet, quid aliud sentire potest quam exitium?”

10) CO36, 131 (사 6:5 주석): “Totum enim hominem, quod attinet ad carnem, in nihilum redigi oportet, ut renovetur secundum Deum.”

자신에 대해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롭게 소생함을 입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이 두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확실한 위로를 소유한다는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sup>11)</sup>

이러한 갱신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칼빈은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더불어 그의 은혜가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왜 그가 하나님을 ‘거룩한 자’와 ‘거룩하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자’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는 그 분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그가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만약 비참한 자들이 그들의 비참함을 인식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은 독특한 위로라고 말할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칼빈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과 그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sup>13)</sup> 그의 거룩을 깨닫는 것은 갱신을 위한 것이지만 갱신의 은혜 그 자체는 거룩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는 인간을 소멸하는 적개심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개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과 교회에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는 진노의 완화로 나타난다:

11) 『기독교 강요』, 3.2.23.

12) CO37, 317 (사 57:15 주석): “Videmus quorsum Dominus se sanctum et sancti atque excelsi loci incolam vocet: nempe, ut quantum a nobis differat, et quam dissimilis naturae sit, intelligamus. Eximiam porro hinc consolationem percipere debemus, quod Dominus miseris adesse velit: imo domicilium sibi inter ipsos eligat, modo scilicet agnoscant miserias suas.”

13) 『기독교 강요』, 1.2.1; 이런 이유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기보다는 은혜로 해석한다. CO31, 223 (시 22:3 주석).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차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완충과 완화를 약속하셨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완전히 소멸하시지는 않을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가 자신에 대하여 일관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나를 위해 택해서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였으며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일부 교회가 계속 남게 될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적개심이 제거되고 죄인을 향한 진노가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속죄의 의미와 중요성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 모든 적의의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를 완전히 그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모든 악을 씻으시며, 그리하여 이전에 부정하고 불순했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와의 화목을 예견하시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에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시키시는 것이다.<sup>15)</sup>

14) CO42, 444 (호 11:9 주석): “... nolit prorsus ecclesiam abolere in mundo, quia hoc modo pugnaret ipse secum. Ego igitur sum Deus, et non homo, sanctus in medio tui: Et quandoquidem ego te mihi elegi, ut peculium. meum esses, et haereditas: et promisi etiam ine tibi perpetuo fore in Deum, ego nunc temperabo meam vindictam, ut maneat semper aliqua ecclesia.”

15) 『기독교 강요』, 2.16.3. Cf. 3.2.28: “그러므로 성경은 그가 모든 적개심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영접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총체로 제시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가 제공하시는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된다. 즉 화목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그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는 우리가 지닌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킨다.<sup>16</sup> 여기에서 칼빈이 이해한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 동일한 차원에서 완전함이나 객관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혜를 통해 누리게 된 거룩은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노력해야 할 객관적 목표에 해당된다:

자기 자신과 같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심에 있어서 이는 동등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전진해야 함을 가리킨다. 그리고 항상 가장 완전한 것은 아주 멀리 있지만, 우리는 매일 더욱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니라”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셨다.<sup>17</sup>

칼빈은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의 속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거룩이 그의 은혜를 내포할

---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면 모든 위협은 이미 지나간 것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가르쳐 준다.”

16) CO55, 447 (베후 1:4 주석): “Nos vero supervacuis speculationibus omissis, hoc uno contenti simus, ea lege reparari in nobis Dei imaginem in sanctitate et innocentia, ut simus tandem aeternae vitae et gloriae socii, quantum ad plenam beatudinem necesse est.”

17) CO55, 222 (베후 1:15 주석): “Et quoniam longe a scopo semper absunt etiam perfectissimi, magis ac magis quotidie enitendum est. Meminerimus autem, non tantum nobis praecipere quid officii nostri sit: sed Deum quoque simul addere, Ego sum qui sanctifico.” Cf. CO32, 100 (시 105:6 주석).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인간을 멸망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의 적개심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백성을 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불리워지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자기에게 헌신하는 자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명칭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 연합시키는 양자삼음에 대해서 되새기신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가 그들의 아버지와 구주가 되심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는 그를 우리의 거룩한 자로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구별하셨으며 이를 부르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이다.<sup>18)</sup>

이런 맥락에서 칼빈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해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조화롭게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첫째, 인간의 죄악을 보지 못하시고 이를 처벌하시는 차원은 하나님이 지니신 초월적 영광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거룩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신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으로서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동반하는 거룩에 해당된다. 셀더르하우스(Herman Selderhuis)는 칼빈의 시편 주석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를 언약(covenant)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화해의 은혜로서 가능한 것이다.<sup>20)</sup>

18) CO 37, 92 (사 43:15 주석): “Sanctus, quia populum delegit atque segregavit, quem sibi consecraret. Nam hoc titulo in memoriam revocat adoptionem, qua sibi peculiariter ipsos coniunxit: ut eum sibi patrem ac servatorem fore intelligant.”

19) Cf. 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1* (Grand Rapids: Eerdmans, 1988): 397-401.

20) 헤르만 셀더르하우스, 『중심에 계신 하나님: 칼빈의 시편 신학』, 장호광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95-97.

### III. 성화의 다양한 측면

#### 1) 하나님께 드림으로서의 성화

칼빈은 기본적으로 거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든 불경건(impiety)이 사라져야 함을 뜻한다.<sup>21)</sup> 하나님이 놀람과 경외의 대상이 되셔야 하며 그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그 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경을 받으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 거룩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칼빈은 말한다.<sup>22)</sup>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성화에 해당된다:

이미 다른 곳에서 반복해서 설명하였던 성화란 세상을 버리고 육체의 오염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마치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거룩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합당하게 그 분께 드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sup>23)</sup>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21) 『기독교 강요』, 3.20.41.

22) CO49, 234-35 (롬 12:1 주석).

23) CO52, 161 (살전 4:3 주석): “Quid valeat nomen sanctificationis, iam alibi saepius dictum est, nempe ut renuntiantes mundo, et carnis inquinamentis exuti, nos Deo velut in sacrificium offeramus: nihil enim illi offerri decet, nisi purum ac sanctum.”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었다.<sup>24)</sup> 하나님께 드림으로서의 성화는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을 위한 관심이 자멸을 초래하는 독약임을 깨닫도록 만든다. 따라서 이전에 자신을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자신의 모든 힘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이 가능해진다.<sup>25)</sup>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길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성화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육체는 언제나 세상 정욕, 즉 소유와 권력을 향한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는 명예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분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인가를 깨닫는 경건함에 놓여 있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유쾌한 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가져다 준 호의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이끈다. 또한 동시에 감사하지 않음에 대하여 책망한다.<sup>26)</sup>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성화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을 통해 칼빈은 이를 설명한다. 칼빈은 이삭을 이미

24) CO 37, 390 (사 62:12 주석).

25) 『기독교 강요』, 3.7.1.

26) CO 49, 233 (롬 12:1 주석): “Paulus autem ut Deo nos non servili metu, sed voluntario hilarique iustitiae amore devinciat, eius gratiae, qua continetur nostra salus, dulcedine nos allicit: simulque ingratitude exprobrat, ...” 참된 경건함에서 비롯된 두려움은 거룩함을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CO 50, 83-84 (고후 7:1 주석).

장성하여 중년에 이른 인물로 간주한다. 이는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제물로 드리지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낸다.<sup>27)</sup> 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만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칼빈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세상의 통상적 사고와는 다른 사고를 지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심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제물로 드리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희생제물이 외부적으로 거룩해지고 씻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희생제물도 성결의 영에 의해 주님께 바쳐진다. 성결의 영의 능력은 그들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며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 정결케 하는 사역은 참으로 그리고 합당하게 성령의 일이다.<sup>28)</sup>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린바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칼빈은 이를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다.<sup>29)</sup> 복음은 희생제물을 찢어 죽이는 칼에 해당된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에게 믿음은 곧 관제(oblatio)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를 통한 성화를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앞서 언급된 죄에 대하여 자신을 죽이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7) CO23, 316 (창 22:9 주석).

28) CO49, 276-77 (롬 15:16 주석): “Iam quemadmodum veteres hostiae externis sanctificationibus et lavacris Deo dicabantur: ita et istae hostiae consecrantur Domino per spiritum sanctitatis, cuius virtute intus operante segregantur ab hoc mundo. ... purgandi munus vere et proprie in spiritum competit.”; CO49, 308 (고전 1:2 주석).

29) CO52, 36-37 (빌 2:17 주석).

## 2) 그리스도의 성화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으며 자신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는 비록 죄인인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몸이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전혀 허물과 부패가 없는 존재이다.<sup>30)</sup> 이를 통해서 그는 모든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sup>31)</sup> 그는 희생제물로서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버리고 양자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다. 그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하시키는 희생제물이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고 순결하다고 간주하시게 된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화해 사역을 그의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 이해하였다.<sup>32)</sup> 이 사역의 핵심은 인간의 죄악을 사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육신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성 안에 성화의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거룩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한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화시키는 능력을 그의 인성 안에 지니고 있다. 그의 능력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거룩을 그의

30) 『기독교 강요』, 2.13.4.

31) CO24, 446 (출 30:23 주석): “Spiritus sancto consecratus est Christus, ut mediator esset Dei et hominum.”

32) CO 47, 25 (요 1:29 주석): “Praecipuum Christi officium breviter quidem, sed dilucide exponit, quod scilicet peccata mundi mortis suae sacrificio tollens homines Deo reconciliet. Alia quidem beneficia nobis confert Christus, sed hoc summum, et ex quo reliqua dependent: quod iram Dei placando facit ut iusti et puri censeamur. Ex hoc enim fonte profluunt omnes bonorum rivi, quod Deus peccata non imputando in gratiam nos recipit.”

인성 안에 부여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 인성에서 모든 것을 발견한다.<sup>33)</sup>

칼빈은 성자의 거룩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과정을 요한복음 17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삼위일체론적 구도로 설명한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자신을 성별하여 성부에게 드림으로서 그의 거룩이 인간에게 주어지도록 하셨다. 이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신 것이었다:

이 표현들을 통해 그는 이 거룩이 어떤 근원에서 흘러 나와서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가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는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셨다. 첫 열매로부터 모든 축복이 모든 추수로 퍼져 나가듯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 거룩에 참여하도록 만드신다. 또한 그가 자신을 친히 그의 아버지께 드림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영에 의해 참된 거룩으로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성전, 제단, 제단에 속한 모든 기구들과 백성들을 그의 영의 능력으로 헌신하도록 하시는 참된 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sup>34)</sup>

33) CO55, 28 (히 2:11 주석): “Neque enim tantum quatenus Deus est, nos sanctificat, sed humanae quoque naturae vis sanctificandi inest: non quod eam habeat a se ipsa, sed quod solidam plenitudinem sanctitatis in eam effudit Deus, ut inde hauriamus omnes.”

34) CO47, 385 (요 17:19 주석): “His verbis clarius explicat, ex quo fonte fluat illa sanctificatio, quae per evangelii doctrinam in nobis peragitur: nempe quia ipse patri se consecravit, ut eius sanctitas ad nos perveniret. Sicuti enim a primitiis benedictio diffunditur in totum proventum, ita spiritus Dei nos Christi sanctitate adspersit facitque eius participes. ... sed dicitur etiam factus esse nobis sanctificatio, quia nos in sua persona quodammodo patri obtulit, ut spiritu eius renovemur in veram sanctitatem. ... quia tunc apparuit verus sacerdos, qui templum, altare, vasa omnia, et populum per spiritus virtutem consecraret.” 『기독교 강요』, 2.15.6.

그리스도의 거룩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순히 전가(imputation)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어지는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 의하면 칼빈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의 거룩을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여전히 그의 제사장적 사역에 해당된다. 알프레드 필러(Alfred Göhler)는 그리스도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대리의 사역을 제사장적 사역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이제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통하여 거룩을 나누어 주시는 사역, 즉 왕으로서의 사역을 행한다고 설명한다.<sup>35)</sup> 그의 제사장적 사역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기에 앞서 자신을 성결케 하심에서 시작된다.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피를 뿌려 깨끗하게 되어야 하듯이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신 것이다. 즉 그의 인간적 본성은 자기의 피로써 성결케 하신 성전임과 동시에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죽음을 통해 성결케 된 성전이었다.<sup>36)</sup>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인간을 위한 대속 사역을 담당하신 것이다. 이 대속 사역은 제사장적 사역이지만 이는 또한 동시에 그의 왕적 사역에 해당된다.<sup>37)</sup>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사죄의 은혜(칭의)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부여(성화)라는 은혜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를 성령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거소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필요한 그 하늘의 은혜들이 그에게서 풍성히 흘러나오게 하였고, 그리하여 신자들은

35) 필러, 『칼빈의 성화론』, 29-30.

36) CO55, 110 (히 9:11 주석). 윌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17.

37) 윌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25. 잔센(John Frederick Jansen)은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을 그의 승귀 이후로 제한하는 것은 칼빈 이후의 개신교 교의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밝힌다, *Calvin's Doctrine of the Work of Christ* (London: James Clarke & Co., 1958), 86.

그 왕의 힘을 통하여, 또한 그들 속에 풍성히 있는 영적 은혜들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이다.<sup>38)</sup>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자신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것이다.<sup>39)</sup>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데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실제로 덧입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신 성화의 원리는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원리이다. 따라서 윌레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화는 교회의 성화를 위한 실제적 근거 또는 모델에 해당된다.<sup>40)</sup>

### 3) 교회의 성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에게 성령은 성화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데 적용된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성결케 하시는 사역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교회라는 공동체적 차원으로 다음과 같이 연결시킨다:

38) 『기독교 강요』, 2.15.5.

39) 『기독교 강요』, 2.15.6.

40) 윌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61ff.

우리가 본성적으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성결케 하신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을 때 유효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의 오염만이 남을 따름이다. 성령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밀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한다.<sup>41)</sup>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목적과 동일한 것이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설립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에 놓여 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확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우리 여정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이를 추구한다면, 이 빛은 호의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를 무지의 미로와 어두움의 심연에서 건져내신 것은 더욱 큰 호의이었다.<sup>42)</sup>

41) CO49, 308 (고전 1:2 주석): “*Nam quum natura profani simus, spiritus nos Deo consecrat: verum quia id fit dum inserimur in Christi corpus, extra quod nonnisi pollutio est, nec aliunde etiam nobis confertur spiritus quam a Christo: merito nos dicit in Christo sanctificari, quando per ipsum Deo adhaeremus, et in ipso fimus novae creaturae.*”

42) CO 55, 241 (벧전 2:9 주석): “*Notandum etiam quod dicit, vocatos esse ex tenebris in admirabile Dei lumen. Nam his verbis gratiae magnitudinem amplificat. Si Dominus in itinere nobis occurreret lumen quaerentibus, hoc mediocre esset beneficium: sed hoc multo excellentius, quod nos ex labyrintho caecitatis et tenebrarum abysson eruit.*”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근거해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은 결코 완전성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신 목표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거룩함은 이에 도달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sup>43)</sup>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므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 진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3년이나 묵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길 수 있었다 (행 20:32).

교회의 거룩은 교회의 통일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교회의 지체들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의 교회를 형성한다. 또한 칼빈은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관성이 교회의 통일성을 위한 근거라고 밝힌다. 성화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서 교회에 이 통일성이 주어진다.<sup>44)</sup> 이는 교회 지체들의 성화를 떠나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생각할 수 없음을 뜻한다. 세상은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인해 분열되어 결코 하나될 수 없지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하나 된다.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통일을 논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의 분열이 얼마나 추하고 끔찍한가를 기억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복된 삶의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영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있음을 명심하도록 하자.<sup>45)</sup>

43) 『기독교 강요』, 4.1.17.

44) CO51, 191 (엡 4:5 주석).

45) CO47, 387 (요 17:21 주석): “Proinde quoties de unitate verba facit Christus, veniat nobis in mentem quae extra ipsum est foeda mundi et horribilis dissipatio. Deinde sciamus hoc beatae vitae esse initium, si uno Christi spiritu gubernemur omnes ac vivamus.”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의한 통치를 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이미 구별된 백성들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데 성화의 본질적 차원이 발견되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sup>46)</sup> 따라서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의 성화를 논할 수 없다. 칼빈은 교회의 통치와 관련해서 말씀은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거부될 수 없는 법령이라고 밝힌다.<sup>47)</sup> 성령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이지만 스스로를 말씀과 연결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참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순수하게 영의 통치에 만 의존하는 교회는 불안한 교회라고 칼빈은 믿었던 것이다.

말씀이 없이 영만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은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지만 이 통치가 모호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교회를 말씀에 합병시켰다고 선포하셨다.<sup>48)</sup>

## IV.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 1) 은혜와 말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화된 삶은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말씀과 영을

46) 『기독교 강요』, 4.1.3.

47) *CO51*, 196 (엡 4:11 주석): “Denique regimen ecclesiae, quod verbi ministerio constat, non ab hominibus excogitatum, sed a filio Dei positum esse docet. Proinde tanquam inviolabili eius decreto acquiescendum: et quicumque hoc ministerium vel respuunt, vel adspernantur, eos in Christum autorem iniurios et rebelles esse.”

48) *OS1*, 465: Quia enim providebat, quam periculum foret, absque verbo spiritum icactare, ecclesiam a sancto quidem spiritu guberanri asseruit: sed eam gubernationem, ne vaga et instabilis crederetur, verbo alligavit.”

통한 통치를 받는 삶이다.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이 회복의 사역이 마지막까지 지속될 것을 확증하신다.<sup>49)</sup> 성령의 사역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여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스스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수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여 이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끄신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많은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보호의 방법은 말씀에 달려 있는데 이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의 위엄은 우리로부터 숨겨져 있기에 그가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이를 찾게 된다. 따라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그는 우리 구원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은혜라는 별칭(epithetos)을 첨가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속격은 효과를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의를 계시하시는 말씀에 더욱 의존할 수 있게 된다.<sup>50)</sup>

49) CO 47, 384 (요 17:17 주석).

50) CO 48, 472 (행 20:32 주석): “Atque eius custodiam ratio a verbo dependet, ne inter tot discrimina periclitetur. Magni autem refert, quomodo nos Deus servare velit, cognoscere. Quia enim abscondita est nobis eius maiestas, donec verbo suo ad nos accedit, dubii circumspicimus. Ergo simul ac nos servandos suscipit, verbum suum proponit organum custodiendae salutis nostrae. Quo sensu addidit epitheton gratiae (genitivus enim more hebraico effectum designat), ut tutius acquiescerent fideles in verbo, ubi Deus favorem suum exserit.”

말씀이 은혜가 주어지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칼빈은 자주 말씀 안에 은혜가 놓여 있다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그의 말씀에 계시하시듯이, 그의 말씀은 우리가 그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도출해내는 원천이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신적 자비가 필요함을 깨닫고 직접 말씀으로 다가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기꺼이 자신에게로 이끄시고 그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준비되었다는 약속을 주신다. 따라서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로우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sup>51)</sup>

## 2) 은혜와 회개

칼빈은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결과로서 이해한다. 비록 회개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즉 회개의 대표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sup>52)</sup> 회개는 인간의 통회를 통해 죄 사함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양약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요, 놀라운 능력이요, 율법의 힘을 능가하는 은혜이다.”<sup>53)</sup> 회개는 사죄를 낳지만 사죄의 문제는 인간의 고백의

51) CO32, 281-82 (시 119:149 주석): “Quia enim bonitatem suam Deus verbo patefecit, inde petenda est eius certitudo. Ergo propheta, quum sibi Dei misericordia opus esse cognosceret, recta se ad verbum contulit, ubi Deus blande homines ad se invitans promittit gratiam suam omnibus promptam et expositam foro.”

52) 『기독교 강요』, 3.3.21.

효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개의 결과로서의 사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것이며 인간은 단지 이를 믿음으로 수용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사죄의 문제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를 진지하게 구하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에 만족하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신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죄인은 주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일반적인 원칙, 곧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마 9:29)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나 하는 한 가지 조건에 부합할 때에 참되고 분명한 사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sup>54)</sup>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므로 회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라 전적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칼빈은 시편 51편을 주해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결여된 상태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적보다 더 한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표현하며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하게 선언한다. 이전에 사용되었던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는 우리의 첫째 중생과 타락의 경우에 후속적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는 그의 마음과 영혼이 연약하므로 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결함과 올바름이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이 모든 것이 결여된 상태에 머물러야만 하기

53) Chrysostom, *Homilies on Repentance*, hom. vii. 1. 『기독교 강요』, 3.4.1.에서 재인용.

54) 『기독교 강요』, 3.4.22.

때문이다.55)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의심과 불확실성의 구름이 우리 마음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회개의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칼빈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의심이 제거되고 참된 회개에 임하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따라서 성령은 교리의 이 부분에 머무르시는데 이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그의 자비에 대하여 생각하지만 이를 감히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56)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하여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의심과 불확실성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선물로 가져다 줄 정도로 풍족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풍족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55) CO31, 518 (사 51:10 주석): “... ac verbo Creandi significat, donec mirabiliter renovatus fuerit Dei virtute, se fore quasi inutile truncum, quo elogio poenitentiae donum, ut par est, commendat. ... Creandi tamen verbo prius confessus est, sive ab initio nos regeretur Deus, sive lapsos in gradum restituat, quidquid est in nobis rectitudinis, gratitum esse eius donum. Neque enim petit cor suum infirmum adiuvari, et spiritum debilem fulciri aliquo subsidio: sed fatetur nihil esse in corde suo rectum vel purum, donec aliunde proveniat.” CO37, 287 (사 55:7 주석).

56) CO37, 289 (사 55:7 주석): “Ideo autem spiritus sanctus insistit in hanc doctrinae partem, quod semper dubitemus an Deus ignoscere nobis velit. Tametsi enim aliquid cogitemus de eius misericordia, tamen certo nobis persuadere non audemus eam ad nos pertinere.”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sup>57)</sup>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단번에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은혜를 받되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로서 간구해야 한다:

믿음이 연약하므로 우리는 신적 은혜의 완전한 정도를 단번에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다윗이 사죄를 위한 기도를 거듭해서 드린 것에 대하여 놀라울 이유가 없다. 그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사죄는 풍성하고 완전하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그의 넘치는 선하심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죄는 한 방울씩 우리에게 떨어져야 한다. 우리가 똑 같은 간구를 거듭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을 베풀도록 점차적으로 부드럽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느리고 어려운 발걸음으로 확신의 완전함에 도달하기 때문이다.<sup>58)</sup>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단번에 모두 받지 못하므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피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sup>59)</sup> 하나님의 무섭고 엄중한 심판을 생각하는 것은

57) CO31, 517 (시 51:7-9 주석).

58) Ibid: “Adde quod exiguo nostrae fidei modulo, non statim recipimus illam quae offertur gratiae plenitudinem. Quare nihil mirum si David angustiis constrictus, tertio et quarto in petenda venia perstiterit, et saepius in Dei conspectum se obtulerit, quo se plenius confirmaret. ... Quamvis enim Deus in solidum ignoscat, non admittit tamen fidei nostrae angustia tam effusam eius bonitatem : sed necesse est ut paulatim distillet. Ideoque hoc ad fidei nostrae captum refertur, quod saepius iteramus eandem precationem, quia licet non paulatim mitigetur Deus, more hominum, lenti tamen sunt fidei nostrae progressus, qui ad plenam certitudinem nos deducunt.”

자신을 살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킨다. 이러한 준비가 곧 회개이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을 낳고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회개를 통한 은혜의 수여 방식은 언제나 지속적이다. 회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되 단회적이거나 간헐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체험한 후에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내적 자만감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참된 겸손을 체험해야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믿음이 다윗이 말하는 겸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겸손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 수도 있으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반항심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내적 교만이 남아있다. 정반대로, 비록 고통의 영과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자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 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 깊이 인식하지만 마음은 회개로 가득 차게 되며 진정한 두려움과 주님의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신적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sup>60)</sup>

59) 『기독교 강요』, 3.12.5.

60) CO31, 522 (시 51:17 주석): “... primo tenendum est, non posse fidem ab hac humilitate, de qua loquitur David, separari. Etsi enim expavescant coram Deo impii, foveant tamen intus perversam contumaciam, nec fremere vel obstrepere desinunt: et quamvis suam ferociam non palam despument, cor tamen semper inflatus manet. Quum ergo spiritus afflictionis et cor contritum hominem irae Dei sensu vulneratum vero timore et displicentia non modo subigant, sed vere mortificent, ut nullus sit apud se, sed totam suam salutem ex Dei misericordia petat: ...”

### 3) 은혜와 인간의 행위

칼빈은 인간의 행위가 인간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도 깨닫지도 못한 불의한 자에게 적용되는 진리일 뿐 아니라 그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사는 참된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이다.<sup>61)</sup> 이를 달리 표현하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참된 의미에서 선행을 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서 결코 선행을 행할 수 없으며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가리킨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선행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그 분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엇이든지 행위에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행위의 공로에 대한 모든 신뢰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까지도 사라질 것이다. 그 모든 공로를 전적으로 완전하게,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께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sup>62)</sup>

칼빈은 인간의 선행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sup>63)</sup> 이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인간에게 은혜 받을 공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61) 『기독교 강요』, 3.14.1-9.

62) 『기독교 강요』, 3.15.4 & 3.14.5.

63) 『기독교 강요』, 3.15.6 & 3.14.19.

첫 번째 은혜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혜택을 극소화하는 주장이며 전적 은혜 (total grace)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sup>64)</sup>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내세우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이 마땅히 인간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당위 또는 채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마치 채무관계에서 비롯되는 행위처럼 마땅하거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sup>65)</sup>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의 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했다. 즉 은혜가 결여된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받으시고 이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이 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일으키는 행위를 인정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sup>66)</sup> 즉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인간의 행위는 범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 행위를 보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과 흔적을 보게 되므로 기뻐하시고 이를 흔쾌히 인정하시는 것이다. 둘째,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깨닫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되는 경우이다.<sup>67)</sup> 이는 인간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인정하시는

64) 『기독교 강요』, 3.14.16.

65) CO49, 231-32 (롬 11:35 주석).

66) 『기독교 강요』, 3.17.5.

67) 『기독교 강요』, 3.14.20.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행위 자체에는 결점이 있고, 더욱이 다른 잘못들로 얼룩져 있지만 단지 값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의로운 행위인 주님의 용서에 근거해서 이를 인정하시는 것이다.<sup>68)</sup> 결국,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는 인간의 행위란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행위 안에 어떤 공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은혜의 성장을 주장한다. 이는 앞에 오는 은혜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로 나아가는 계단처럼 작용하므로 이를 원인이라고 보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칼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은혜위에 은혜를 쌓으심으로서 그 이전의 은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혜를 얻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하심으로서, 그의 종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일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의 너그러우심을 풍성히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값없이 주신 택하심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바로 그 택하심의 근원이요 시작인 것이다.<sup>69)</sup>

이러한 은혜의 성장은 구체적으로 죄로 물든 육체에 대한 점진적 승리를 통해 삶의 진보, 즉 성화를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의 성장을 뜻한다. 육체에 대한 승리와 더불어 은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sup>70)</sup> 그리고 이 은혜의 성장은 인간이

68) 『기독교 강요』, 3.17.15.

69) 『기독교 강요』, 3.14.21.

70) CO49, 308 (고전 1:2 주석); CO32, 195 (시 116:8 주석).

죽음에서 부활하기 까지 지속된다.<sup>71)</sup> 이에 대해서 필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생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점차로 성장하고 진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sup>72)</sup>

은혜의 성장의 결과로 인간은 삶에서 영적인 진보와 발전을 체험하게 된다. 여기에서 진보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전적으로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성화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인간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책임으로서의 성화의 완성을 위한 동기 부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sup>73)</sup> 즉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인간을 격려하고 권면한다. 칼빈은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로마교회에 성화된 삶을 살기를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그리고 위선자들 또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을 악의적으로 흐리게 만드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죄의 문을 과감하게 열어 제친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유쾌한 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가져다준 호의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이끈다. 또한 동시에 감사하지 않음에 대하여 책망한다.<sup>74)</sup>

71) CO 52, 9 (빌 1:6 주석).

72) 필러, 『칼빈의 성화론』, 54.

73) 『기독교 강요』, 3.16.3.

74) CO 49, 233 (롬 12:1 주석): “Rursum hypocritae, quasi Dei gratia exstinguat pie vivendi studium ac peccandi audaciae ianuam aperiat, eius notitiam maligne, quantum in se est, obscurant. ... Paulus autem ut Deo nos non servili metu, sed voluntario hilarique iustitiae amore devinciat, eius gratiae, qua continetur nostra salus, dulcedine nos allicit: simulque ingratitude exprobrat, ... “

## V. 결 론

지금까지 칼빈의 성화론에 대한 재고찰로서 이를 그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칼빈이 은혜를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 정초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성화론은 구원받은 구원과 관련된 인간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이해에 근거한 은혜로부터 고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에 죄악으로 가득찬 인간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거룩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그가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로서 이해함으로써 그의 거룩에 대한 이해에는 은혜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거룩에 대한 개념을 정초로 칼빈은 성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성화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으로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므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성화와 그리스도의 성화를 통해서 교회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교회의 거룩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획득하신 거룩함이 부여된 결과이다. 따라서 교회의 성화는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 은혜가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수단에 해당된다. 칼빈은 이를 말씀 안에서 은혜가 주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둘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칼빈은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나

님의 은혜가 인간이 회개하도록 도우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회개와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하면서 강조한다. 셋째,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행위는 수용되고 인정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성화는 하나님 자신의 영의 행위이므로 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성화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성을 지닌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지속성이 은혜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